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

## -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

예 남 희(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 I. 서론

가정에서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던 어머니의 역할은, 맞벌이 혹은 자아성취를 위한 학업 및 사회적 활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양육 및 가사의 분담이 점차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는 달리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양육과 가사를 주로 부인이 맡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기혼 여성의 91.4%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통계청, 2005). 이는 자녀양육이나 가사의 공동부담에 있어 인식과 실제가 다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각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최근의 국내연구들(박해미, 1994;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홍희란, 2002)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여전히 아버지보다 높음을 지적하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서, 대부분의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민하영, 김경화, 2005)이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내외 선행연구(문혜련, 1998; Crnic & Greenberg, 1990)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관련 변인과 자녀관련 변인, 그리고 가정 환경관련 변인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본 관련 연구들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기질,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유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문혜련, 1998; 박해미, 1994; 안지영, 2001; 홍희란, 2002; Abidin, 1990; Crnic & Acevedo, 1995; Crnic & Greenberg, 1990)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어머니의 내적특성과 가정환경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특성인 성인애착과 가정환경변인인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현재의 자녀양육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경험이라면, 성인애착은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양육경험, 즉 자신이 받았던 양육의 과거경험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설명하고 또 현재는 미래의 발달특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과거

양육경험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성인애착은 현재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성인애착이 자신과 사회적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인 성인애착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배우자는 자녀양육에 있어 주 양육자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 어머니의 자녀양육 활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원체계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와의 관계 갈등을 반영하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 영향을 매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관계를 보일 수 있는 부부갈등이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선행연구(김광운, 2005)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Bowlby(1969)의 애착개념에 뿌리를 둔 성인애착은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이다. 이러한 성향은 성인기 친밀한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애착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보다 신뢰롭고, 혼신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부부간 관계에서도 보다 높은 만족도와 낮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Feeney, Noller, & Callan, 1994)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갈등이 어머니 자신의 성인애착 특성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인애착이 높지 않은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행동특성을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보다 강렬한 갈등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높아진 부부갈등에 의해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종속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매개변인(부부갈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매개변인(부부갈등)이 종속변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효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Baron과 Kenny(1986)는 매개 효과를 검증단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는가?
- [연구문제 1-1] 어머니의 성인애착(독립)은 양육스트레스(종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1-2] 어머니의 성인애착(독립)은 부부갈등(매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종속)에 대한 성인애착(독립)의 영향은 부부갈등(매개) 통제 시에도 유의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 3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안지영(2001)<sup>o]</sup>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문항을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18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삭제하여 총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성인애착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애착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8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 6문항을 삭제하여 총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로 나타났다.

#### 3) 어미니의 부부갈등

어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 가능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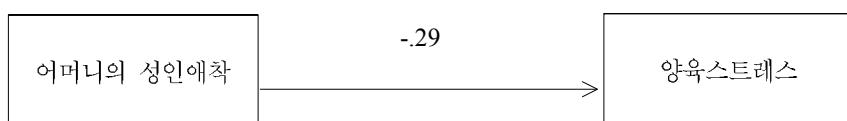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과정 모델을 기초로 연구문제 1-1, 1-2, 그리고 1-3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3의 경우 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93, VIF값이 1.0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나타내지 않아 중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에 대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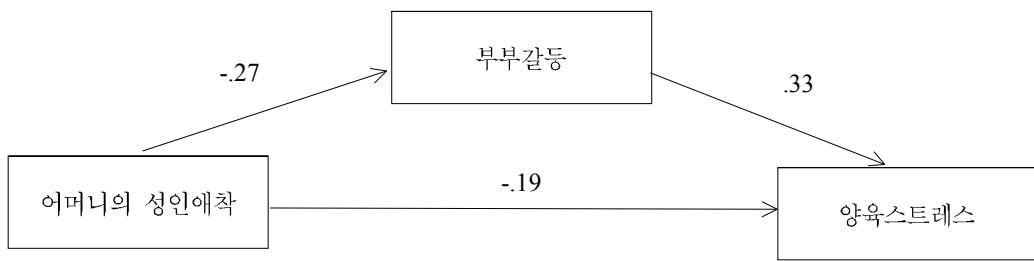
단계	변인	B	Std. Error	$\beta$	F값 (df)	R <sup>2</sup>	상수 (Std. Error)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의 성인애착 → 양육스트레스	-.33	.06	-.29*** (1,368)	.08	44.22 (2,456)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어머니의 성인애착 → 부부갈등	-.20	.04	-.27*** (1,368)	.07	27.60 (1,569)
3단계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부갈등 → 양육스트레스	-.22 .55	.06 .08	-.19*** .33*** (2,367)	.18	29.81 (3,145)

주)\*p<.05

<표 1>의 1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 $\beta=-.29$ ,  $p<.05$ )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부부갈등에 부적인 영향( $\beta=-.19$ ,  $p<.05$ )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부갈등을 통제했을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 $\beta=-.29 \rightarrow \beta=-.19$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짐을 나타낸다(<그림 2> 참조).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1>의 1단계 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며,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1>의 2,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



<그림 2> 부부갈등을 매개로 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만 3, 4,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37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한 연구들(강우순, 2006; 이정희, 1994; 이주리, 이종인, 2008)에 의해 지지되어지며, 이는 다시 말해 어머니의 과거 양육경험인 성인애착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 즉 현재 양육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인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부부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배우자 선택, 결혼만족 간의 관계(김광은, 2005; 이희숙, 박경, 2008; 전효정, 1999)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부갈등을 통제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이 부부갈등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지지가 있을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를 감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수미, 민하영, 2007; 문혜련, 1998)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Abidin, 1990)들에 의해 지지되어지는 결과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 또는 감소하는데 배우자의 지지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

## -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

권 혜진(나사렛대학교 조교수)

자녀 양육이 더 이상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나, 여전히 양육과 가사를 어머니가 전담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여전히 아버지보다 높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본 관련 연구들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기질,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유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자녀의 발달과 관련지어 탐색되고 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연구가 양적으로는 많지만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하거나 조절하여 건강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머니의 내적특성인 성인애착과 가정 환경변인인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본 연구주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완충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여 중재프로그램 마련 등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 대해 몇가지 논의점 및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엄정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성인애착은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양육경험, 즉 자신이 받았던 양육의 과거경험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는 현재를 설명하고 또 현재는 미래의 발달특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과거 양육경험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성인애착은 현재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녀가 애착을 형성하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와의 애착을 함께 발달시키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논문에서 어머니의 원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을 측정한 것이라면 측정도구에서 이를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성인애착의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 및 논의도 이에 준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연구의 한계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척도 역시 측정도구의 내용이 본 연구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결과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이므로 이 연구에서 각 변인의 척도 구성내용을 제시해 준다면 연구결과의 해석 및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